



오늘날 예절의 혼선은 우리를 당황케 한다. 전통적인 인습(因習)에 의하면 장유지서(長幼之序)가 있고 양반과 상놈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사회유지의 기강(紀綱)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자체에 시비를 가릴새 없이 이른바 민주주의를 정치

이념으로 삼을뿐만 아니라 그것은 동시에 윤리, 가치관 그리고 예절에까지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

민주주의라면 모든 사람은 평등한 것을 대전제(大前提)로 하고 어떤 장소나 모임에 있어서 기능을 위주로 하는 사회질서라 고 본다. 그런데 이 두가지 다른 질서의 혼선 때문에 우리는 왕왕 고충을 겪어야 한다.

어떤 대회에서의 일이다. 1천2백여 여성들이 모여 민주적인 가족법을 만들기 위

한 모임이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일면을 살리려는 대회인만큼 단상(壇上)의 좌석마련에서도 대회순서를 말은 사람과 대회가 공로자로 선정된 사람들만의 자리를 마련하였을뿐 계급이나 연장자(年長者)나 연소자(年少者)의 차별을 전혀 고려에 넣지 않았었다. 그런데 준비측은 뜻밖에 호된 나무람을 당해야 했다. 그것은 어떤 정치적

예절의 혼선

고위층의 한분이 참석했었는데 그를 위한 배석(配席)의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았기 때문이다.

韓國의 여성을 대변하는 한 여성에게 갑은 여성들로서 경의(敬意)를 표하는 일이 나 그 수고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안다. 그런 이를 과소평가하는 일은 나무람 받아 마땅하고 노여움을

살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회장에서 단상에 자리를 마련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그를 존중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재래적(在來的)인 예절에서 보면 그럴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예절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다면 그자리에는 많은 공로

자들과 고령층의 지도자들도 참석했었다.

그분들에게도 으레 특별한 대접을, 자리로서 표시하여야 했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단상은 차 버리고 말았을 것이며 또 우리 배려를 했어도 원망은 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指向)하고 있는 줄로 안다. 동시에 우리는



朴 莫 淑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처장>

과거의 허례허식(虛禮虛飾)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좁먹은 것을 깨닫고 그것에서 오는 온갖 폐단을 극복하려고 갖은 노력을 경주(傾注)하고 있다. 더군다나 근대화를 지향하는 사회는 기능(技能)사회여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전통이 아름다와도 눈물을 머금으면서도 비(非)기능적인 것들은 배제(排除)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딜레마」속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는 진정 알고 싶다.

민주주의 사회의 전설은 입으로만 떠드는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들의 체질개선과 사고(思考)에 그 정신이 깊숙이 파고 들때만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되며 이렇게 비판하는 이들이나 비판받는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